'기차놀이'로 불리던 예전의 경륜이 아니다

재미백배 '연대의 마법'…경륜도 팬덤 탄생?

지역대결 '팀전', 맞추는 재미가 달라
12일 광명경주 수성팀의 연대 반란
쌍승식 101배·삼쌍승식 384배 잭팟
야구같은 지역 응원문화 형성 기대감

광명스피돔에서 경륜선수들이 연대를 형성하며 경주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경륜 레이스가 개인전 외에 소속훈련지간의 팀전 양상까지 띠면서 더욱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주 추리가 더 다양해졌고 보는 재미, 맞추는 재미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최근 경륜 경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재미있어졌다. 경주마다 개인별 경쟁에 더해 팀전까지 더해지면서 치열해졌다.

과거 득점이나 인지도 높은 선수들이 당연하듯 나란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도전세력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착순권에 진입하는 '기차놀이'로 불리던 천편일률적 흐름은 옛말이 됐다. 전개가 엎치락뒤치락 변화무쌍해졌고 스퍼트 시점이 빨라지면서 속도감도 배가됐다.

비록 특선은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나 가진 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연대'의 개념이 크게 바뀐 것도 형평성 측면에선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경륜은 대열의 선두에서 주도권을 가진 선행형 또는 강력한 우승후보를 약 70%의 힘만으로도 따라갈 수 있는 독특한 종목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록에서 크게 뒤지는 선수도 자리만 잘 잡고 유지하면 본인보다 월등한 선수를 누르고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선수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작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통하는 선수와 앞뒤로 대열을 형성한다. 팬들의 베팅 성패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1위가 아닌 2, 3위 선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연대 라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2일 일요 광명 특선 15경주는 경륜계 최고 명문 팀으로 꼽히는 김포팀과 수성팀의 4대3 맞대결이 펼쳐졌다. 수장인 정종진과 임채빈은 없었지만 초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류재열(수성)이 막판 반바퀴 젖히기로 김포팀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팀 선배인 김원진, 김형모까지 입상권으로 불러들이며 1, 2, 3위를 모두 싹쓸이했다.

이어 열린 결승 16경주에서는 초반 대열 앞선에서 협공을 시도했던 수성팀의 김민준이 강력한 우승후보인 슈퍼특선반 인치환을 비롯한 김희준, 공태민 등을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해 쌍승식 101.0배 쌍복승식 259.3배 삼쌍승식 384.4배의 잭팟을 터트렸다. 인기 순위가 하위권으로 관심 밖이었던 같은 팀 안창진과 초반에 앞선을 확보했고 마크 전환 후 추입작전을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

이처럼 경주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지역대결 편성이 더해지면서 이제 팀전은 벨로드롬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 되었다. 경주 추리는 더 다양해졌고 보는 재미, 맞추는 재미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크게 활성화 됐다. 경륜 시행 초기 프로야구나 축구처럼 지역 응원 문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됐다. 팬덤이 형성되면 건전한 응원 문화와 더불어 흥행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지역별 간판스타들이 팀전 같은 정면 승부를 꺼리고 있다.

과거 경륜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 엄인영, 지성환, 조호성 같은 당시 인기스타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었고 라이벌을 만나면 정면대결을 벌였다. 즉, 요즘처럼 앞뒤로 붙어 잡느냐 못 잡느냐가 아닌 라인을 달리해 때론 선행대 선행, 젖히기대 추입 같은 정면 승부가 잦았다. 전문가들은 경륜의 간판급 선수들이 이런 레이스를 벌인다면 벨로드롬은 몇 배는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원년 전문가인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은 "선택은 자유고 전법도 선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처럼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은 팬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플라잉스타트, 데이터 기반 족집게 베팅

경정, 스타트 방법 따른 전략 필요

온라인스타트, 연습때 활주력 중요

물위에서 레이스가 펼쳐지는 경정은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독특한 스타트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플라잉스타트와 온라인스타트가 그것이다.

기본적인 스타트 방법은 플라잉스타트다. 플라잉스타트는 6명의 선수들이 피트를 출발해 대시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진 코스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를 대기행동이라고 한다. 이후 엔진을 가속해 0초에서 1.0초 사이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한계점인 0초보다 먼저 통과하면 사전출발(플라잉-F)이 되고 1.0초를 초과해 통과하면 출발지체(레이트-L)가 된다. 출발위반(F/L)을 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출발위반 시 영종도 경정훈련원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의무훈련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출발위반 시점부터 6개월간은 대상경주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00경주 이상 출발위반이 없거나 훈련원 연습에 자진 참가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수에게는 보다 많은 경주에 출전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플라잉스타트는 선수의 코스별 데이터, 최근 스타트 데이터, 당회차 지정훈련 기록 등을 참고하면 실전에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온라인스타트는 2016년 36회차부터 도입했다. 플라잉스타트와 달리 대기행동 과정 없이 피트에서 경기가 시작된다. 자동차 경주의 드래그 레이스와 같은 방법으로 계류장에서 선수들이 출발신호와 함께 동시에 박차고 나와 결승선까지 경쟁한다. 출발위반이 없어 스타트의 부담이 덜하지만 어떤 모터를 배정 받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화요일 지정연습과 1일차 연습에는 크게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정비를 통해 기력을 끌어 올려 입상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사전 스타트 연습 시 모터가 직선에서 치고 나오는 활주력을 주의 깊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온라인스타트 경주의 추리를 위해 화요일 지정훈련 시 확정검사와 온라인스타트 기록을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임병준 쾌속정 팀장은 "전체적인 기량이 과거에 비해 평준화 된 것은 사실이나 그중 좀 더 공격적인 스타트와 1턴 선점에 나서는 선수들을 입상 후보로 눈여겨봐야한다"며 "온라인스타트 기록이 추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터의 기본적인 성능과 사전 스타트 시 직선 가속력이 돋보이는 선수를 체크한다면 추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경륜 빅스타들, 아마시절의 뿌리는?

'트랙 출신' 임채빈 '도로 출신' 정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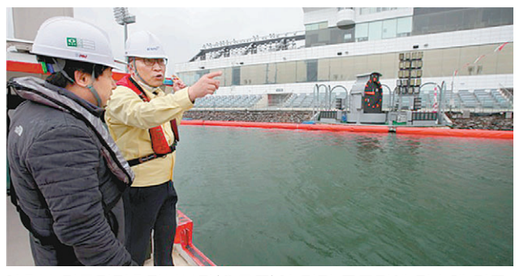
경륜은 대부분의 선수가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를 거쳐 프로로 데뷔한다. 아마추어 사이클 종목은 트랙, 도로, MTB, BMX로 나눌 수 있다.

트랙 스프린트 출신으로는 임채빈을 비롯해 정하늘과 성낙송이 있다. 그 외 황준하, 임치형, 조주현 등을 들 수 있다. 1km를 혼자 전력으로 질주하는 독주경기서 활약한 선수는 한국신기록을 세운 임채빈과 황인혁, 그리고 강준영이 있다. 정하늘도 고교시절 독주가 주 종목이었다.

대표적인 트랙 중장거리 종목인 포인트는 레전드 조호성의 주 종목이었다. 현 경륜선수로는 신동현, 김명섭, 손재우 등을 들 수 있다. 스크래치 출신으로는 정종진, 박용범, 이현구 등이 있다. 아마 경륜은 선두 유도를 오토바이가 한다는 점이 프로와 다르지만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흡사하다. 아마 경륜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정하늘, 성낙송, 박용범이 있다.

도로 종목 출신 선수로는 그랑프리 5승의 정종진이 대표적이다. 황승호, 정재원도 도로 출신이며 신은섭도 고교 시절 도로 종목으로 두각을 보였다. 이 외 산악용 자전거로 경기하는 MTB 출신으로는 우수급에서 활약하는 유성철, 남용찬, 안재용 등이 있다.

김재범 기자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오른쪽)이 경정 구조정에 탑승해 긴급 보수 현장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미사리경정장 긴급보수 안전 점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최근 미사리경정장 긴급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했다. 이 총괄본부장은 미사리경정장 내 파도저감 장치인 소파시설 긴급 보수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현장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표 〈시범경기·21일〉

•키움-NC 2차전 〈NC 1무 1패〉

											2시간50분
창원	키 움	0	0	2	0	2	0	0	1	0	5
	N C	0	1	3	0	0	0	0	0	1	5

관중 408

▲결승타=없음 ▲홈런=박석민2호(2회1점 요키시) ▲3루타=박대온(9회) ▲실책=송성문(3회) 김혜성(3회) ▲도루=김혜성(3회) 오태양(5회) ▲주루사=김태진(3회) ▲포일=박대온(8회) ▲폭투=김영규(8회) ▲보크=요키시(3회) ▲심판=문동균 오훈규 구명환 함지웅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요키시		2	0	0	0	4.0	64	17	15	2	1	1	1	5	4	1	2.57
	후라도	5.9	2	0	0	0	4.0	54	15	15	3	0	0	0	8	0	0	0.00
[무]	문성현	9.6	1	0	0	0	1.0	17	4	4	1	0	0	0	1	1	1	9.00
	와이드너		2	0	1	0	4.0	60	15	15	4	0	0	0	3	2	2	3.86
	이용준	5.7	1	0	0	0	2.1	52	14	14	7	0	0	0	2	2	2	7.71
	조민석	7.3	3	0	0	0	0.2	10	2	2	0	0	0	0	0	0	0	0.00
	김영규	8.5	4	1	0	0	1.0	13	4	4	1	0	0	0	0	1	0	4.91
[무]	임정호	9.9	3	0	0	0	1.0	12	3	3	0	0	0	0	1	0	0	6.00

•LG-KIA 2차전 〈LG 1승1패〉

											3시간12분
광주	L G	0	0	0	0	0	0	0	3	3	6
	K I A	0	0	0	2	0	0	0	0	0	2

관중 1,301

▲결승타=김기연(8회 2사 1,2루서 좌월 홈런) ▲홈런=김기연1호(8회3점 김대유) 송찬의2호(9회2점 전상현) ▲2루타=소크라테스(4회) 송찬의(8회) 고종욱(9회) ▲실책=서건창(4회) ▲도루=서건창(1회) 김호령(3회) 이창진(4회) 홍창기(5회) 김주성(6회) 신민재(9회) 박해민(9회) ▲도루자=홍창기(2회) 홍종표(6회) 최정용(7회) 신민재(8회) ▲포일=주효상(6회) ▲심판=박근영 윤태수 송수근 이기중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플럿코		2	1	0	0	4.0	47	16	14	2	0	1	1	1	2	1	1.29
	정우영	5.8	1	0	0	0	1.0	6	3	3	0	0	0	0	0	0	0	0.00
	김윤식	6.2	1	0	0	0	1.1	27	5	4	1	0	1	0	1	0	0	0.00
[승]	김진성	7.7	3	1	0	0	0.2	5	1	1	0	0	0	0	1	0	0	0.00
[홀]	유영찬	8.8	4	1	0	0	1.0	8	4	3	0	0	1	0	0	0	0	0.00
	백승현	9.3	4	1	0	0	1.0	24	5	4	1	0	1	0	2	0	0	0.00
	윤명철		2	0	0	0	4.2	71	18	15	2	0	3	0	2	0	0	0.00
[홀]	곽도규	5.1	4	0	0	0	0.1	8	2	1	0	0	1	0	0	0	0	0.00
[홀]	박준표	6.3	2	0	0	0	0.2	25	4	2	0	0	2	0	0	0	0	0.00
[홀]	이준영	6.7	4	0	0	0	0.1	3	1	1	0	0	0	0	1	0	0	0.00
[홀]	김유신	7.8	3	0	0	0	1.0	23	5	4	1	0	1	0	0	0	0	0.00
[패]	김대유	8.4	4	0	2	0	0.2	24	7	6	5	1	1	0	0	3	3	12.27
	전상현	8.2	4	1	0	0	1.1	24	7	6	3	1	0	1	1	3	3	6.23

•두산-KT 2차전 〈KT 1승1무〉

												3시간30분
수원	두 산	0	0	2	3	0	0	0	0	0	5	
	K T	1	0	0	0	0	0	4	0	0	5	관중 600

【타자일순 7회말】 류현인 유망

▲결승타=없음 ▲3루타=김대한(7회) ▲2루타=박병호(1회) 로하스(3회) 강승호(3회) 문상철(6회) ▲실책=김재환(1회) 류현인(3회) 이병헌(5회) ▲주루사=강승호(3회) 김대한(7회) ▲병살타=알포드(8회) ▲폭투=소형준(4회) 손동현(5회) 이형범(6회) 이승진(7회) ▲심판=문승훈 추평호 이용혁 이계성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최원준		2	0	1	0	4.0	61	16	16	4	0	0	0	2	1	0	1.17
	이병헌	5.8	5	0	0	0	1.0	21	5	3	0	0	2	0	0	0	0	4.15
	이형범	6.4	4	1	0	0	1.0	13	4	4	1	0	0	0	2	0	0	0.00
	이승진	7.8	4	0	0	0	0.0	11	3	3	3	0	0	0	0	3	3	9.00
	김호준	7.2	5	0	0	0	0.0	5	1	0	0	0	1	0	0	1	1	13.50
	김명신	7.3	3	0	0	0	0.2	27	4	4	2	0	0	0	2	0	0	6.75
	장현준	7.7	4	0	0	0	0.1	9	2	1	0	0	1	0	0	0	0	4.50
	정철원	8.9	1	0	0	0	1.0	16	4	4	2	0	0	0	0	0	0	0.00
[무]	홍건희	9.4	3	0	0	1	1.0	5	3	3	0	0	0	0	0	0	0	0.00
	소형준		1	0	0	0	3.1	66	17	14	5	0	2	1	0	5	5	13.50
	박세진	4.9	4	0	0	0	0.2	24	5	4	2	0	1	0	1	0	0	0.00
	손동현	5.5	4	1	0	0	2.0	25	8	6	0	0	2	0	1	0	0	4.76
	이채호	7.4	4	0	1	0	1.0	16	4	4	1	0	0	0	0	0	0	8.10
	박영현	8.8	4	0	0	1	1.0	10	3	3	0	0	0	0	1	0	0	0.00
[무]	김재윤	9.2	3	0	0	0	1.0	11	3	3	0	0	0	0	1	0	0	0.00

•롯데-삼성 2차전 〈삼성 2승〉

												3시간17분
대구	롯 데	0	0	0	1	4	4	0	1	0	10	
	삼 성	0	1	1	4	6	0	0	0	X	12	관중 1,350

▲결승타=이재현(2회 1사 2,3루서 중견수 희생플라이) ▲홈런=피렐라1호(3회1점 나균안) 공민규1호(4회2점 나균안) 한동희2호(5회4점 최충연) 김동엽1호(5회2점 최준용) ▲2루타=공민규(2회) 강민호(3회) 안권수(6회) 렉스(6회) 김태훈(7회) ▲실책=이재현2(3 4회) 안권수(4회) 김태훈2(4 6회) 고승민(5회) 렉스(5회) ▲도루=김재성(5회) ▲주루사=윤동희(8회) ▲폭투=윤명준(5회) ▲심판=차정구 전일수 김병주 유덕형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패]	나균안		2	0	1	0	4.0	74	24	21	10	2	1	2	4	6	4	7.00
	윤명준	5.7	3	0	0	0	0.0	21	4	3	2	0	1	0	0	4	2	9.00
	최준용	5.2	3	0	0	0	1.0	23	5	5	2	1	0	0	1	2	2	6.00
	문경찬	6.7	3	0	0	0	1.0	11	3	3	0	0	0	0	1	0	0	0.00
	구승민	7.1	3	0	0	0	1.0	17	4	4	1	0	0	0	0	0	0	0.00
	신정락	8.5	3	0	0	0	1.0	17	4	4	1	0	0	0	1	0	0	7.71
[홀]	양창섭		2	1	0	0	4.0	58	16	16	2	0	0	0	2	1	0	0.00
	최충연	5.8	4	0	0	2	1.0	23	7	6	3	1	1	0	1	4	4	8.31
	신정환	6.6	3	0	0	0	0.2	25	7	5	3	0	2	0	1	4	4	23.63
[홀]	이재익	6.4	5	1	0	0	1.1	21	4	4	0	0	0	0	2	0	0	2.08
[홀]	박세웅	8.8	2	0	0	0	1.0	13	4	3	2	0	0	1	1	1	1	5.40
[세]	김대우	9.3	3	0	0	1	1.0	13	4	3	0	0	1	0	0	0	0	5.40

•SSG-한화 2차전 〈한화 1승1무〉

												2시간49분
대전	S S G	0	1	1	0	1	0	0	0	0	3	
	한 화	0	0	0	0	0	0	0	3	0	3	관중 1,120

▲결승타=없음 ▲2루타=최지훈(3회) 전의산(5회) 추신수(7회) ▲실책=정은원(5회) ▲도루=최정(2회) 김태연(8회) ▲주루사=최지훈(5회) ▲병살타=노시환(1회) 최지훈(1회) 이진영(5회) ▲보크=김재영(5회) ▲심판=정종수 박기택 배병두 김선수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김광현		1	0	0	0	3.2	54	13	12	2	0	1	0	4	0	0	0.00
[홀]	노경은	4.5	3	0	0	0	1.1	30	7	5	2	0	2	0	1	0	0	0.00
	오원석	6.3	2	0	0	0	3.0	51	14	14	5	0	0	0	4	3	3	11.25
[무]	최민준	9.8	4	0	0	1	1.0	10	3	3	0	0	0	0	0	0	0	0.00
	김민우		2	0	0	0	3.0	67	14	11	4	0	2	1	4	2	2	6.43
	주현상	4.6	3	0	0	0	1.0	12	3	3	0	0	0	0	1	0	0	3.38
	김재영	5.9	1	0	0	0	1.0	16	5	4	1	0	1	0	0	1	1	9.00
	김기중	6.5	1	0	0	0	1.0	18	3	3	0	0	0	0	2	0	0	0.00
	이태양	7.8	4	0	0	0	1.0	16	4	4	1	0	0	0	1	0	0	0.00
	강재민	8.3	4	0	0	0	1.0	13	3	3	0	0	0	0	1	0	0	0.00
[무]	김범수	9.6	4	0	0	1	1.0	7	3	3	0	0	0	0	1	0	0	2.25

프로농구 〈20일〉

•2022-2023 SKT 에이닷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안삼공사	51	36	15	0.706	0	2승
2	LG	50	33	17	0.660	2.5	1패
3	SK	50	32	18	0.640	3.5	5승
4	현대모비스	50	31	19	0.620	4.5	4승
5	캐롯	50	26	24	0.520	9.5	2패
6	KCC	51	23	28	0.451	13	2패
7	KT	50	20	30	0.400	15.5	3승
7	DB	50	20	30	0.400	15.5	3패
9	가스공사	50	17	33	0.340	18.5	3패
10	삼성	50	13	37	0.260	22.5	4패

NBA 〈21일〉

•경기결과

골든스테이트	121-108	휴스턴	미네소타	140-134	뉴욕
유타	128-120	새크라멘토	멤피스	112-108	댈러스
시카고	109-105 〈연장〉	필라델피아	샬럿	115-109	인디애나

경기예고

프로배구 〈22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준PO〉

우리카드 〈장충체육관〉 한국전력

오후7시, KBS N SPORTS / SBS SPORTS

프로농구 〈22일〉

•2022-2023 SKT 에이닷 KBL

SK 〈잠실학생〉 캐롯

오후7시, SPOTV / SPOTV ON

오늘의 경기 〈22일〉

사격 ●제24회 미추홀기 전국대회(9시·인천옥련국제사격장)

테니스 ●하나증권 전국종별대회(김천종합스포츠타운)